

# 내가 느낀 건강진단

동해산업보건센터 이 경 숙

피부에 와닿는 무더운 한여름의 더위를 느끼면서 큰 심호흡과 함께 어깨를 활짝 펴본다. 지난해 이던가.

새로 입사한 후배간호원과 같이 첫검진을 나가던 날 일러줬던 한마디가 생각난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과수원의 배꽃이 이쁘게 피고 탐스런 열매가 맺혀 결실을 보고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을때까지 검진을 다닐것인데 그 시간이 결코 길거나 지루한 시간이 아닌 눈 깜짝할 사이이며, 콧등에 땀이 맺히고 아 이것이 검진이구나 생각할 즈음이면 검진은 어느새 끝이 난다고...

다른 도시에 비해 울산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석유화학, 비철금속, 기타 섬유제품 등 제조업이 무수히 많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공업도시이다. 이곳만큼은 공장규모 등이 크고 임금수준이 높은 까닭에 근로자 자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보기도문 도시라 생각되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새삼스레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세상 어느누구도 대신 질병을 앓거나 치료받아 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될때 건강진단이라는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느낀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근무한지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때로는 큰소리내어 웃고싶을만큼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야 될 일도 있었으며, 하루 24시간을 결코 헛되지 보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적도 여러번 있었다.

검진을 하다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있다면 무더운 여름 땀방울 아래 용접봉을 손에 쥔고 자신이 맡은 일에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꽤나 건강해 보이던 아저씨의 얼굴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건강으로 맺가를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피부로 느낀다.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가족과 회사와 기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검진을 다니면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특별하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병원이라는 높은 문턱을 쉽게 넘어들지 않으려는 것이다. 근무중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진자를 되돌려 보내는 사업자를 볼 때와 아직까지 건강진단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건강진단이 다 끝나도 약 한봉지도 주지 않더라는 말을 전해들을 때 속이 상했던 일도 많았고, 1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진단이라도 빠짐없이 받도록 해주십사하고 속으로 되내어보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던것 같다.

검진을 나가면 내가 주로 맡는 업무는 청력검사이다.

시끄러운 사업장에 오래 근무하고 검진에 도통한(?) 아저씨 검사해줄 사람은 시작도 않았는데 앞에 검진받는 아저씨는 정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들린다는 싸인을 보낸다.

이럴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혈압측정을 하다보면 꽤나 우스울 때도 많다.

25세정도의 무척이나 얌전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던 총각(?)이 의자에 앉자마자 얼굴색이 말이 아니다. 붉으락 푸르락 안절부절 내 표정만 빠짐없이 살핀다. 이런분이 한 둘 아니겠지만 혈압측정은 뒤틀전이고 아마도 나를 여자(?)로 생각했나보다 맘소사 ...

따사로운 계절 4월초순부터 검진이 시작되어 한참인 지금. 한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한명도 빠짐 없는 검진을 하고 검진을 받았음 한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대다수의 사업체가 3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

때로 새벽검진을 나갈 때면 시간에 쫓기는 검진자들을 지켜보며 걸치레의 형식적인 검진보다는 조금씩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자신의 건강진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

새벽검진을 나갈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국장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꽤나 큰 힘과 용기가 되어 준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수고! 라는 한마디가.